



투쟁속보

파업9일차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송은옥

오늘(21일) 오전 9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회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조합원 단결로 의료원이 움직여...
“의료원은 결단하라”**

지난 19일, 파업 7일 차 조합원 1,000여 명이 보여준 단결의 힘으로 의료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측은 실 무협의를 요청했고, 우리지부는 이에 응하여 늦은 밤까 지 우리의 요구안을 관철 시키기 위해 심도 깊은 대화 를 나눴다. 그러나 20일 오전, 임금에 대한 노사 입장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양측이 확인하였다. 이에 노 조는 또 다른 논의 틀 방식인 사후조정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화의 창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여는 노력이기도 하다.

사후조정은 파업기간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통해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조와 사측 쌍방이 모두 요청하여 사후조정을 신청하게 되었 다. 그러나 사후조정에서도 안이 좁혀지지 않으면 우리 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사후조정은 교섭의 한 과정 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우리지부는 끝까지 합 리적인 임금안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사후조정 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합원 의 흔들림 없는 파업대오 유지!**

앞서 언급했듯,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파업대오를 보여줬기 때문 이다.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원하는 안을 쟁취할 때까지 서로를 믿고 보듬으며 각자의 자 리를 지켜야만 한다.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환자를 돌보다 환자가 되지 않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더이상 동료가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시설이 아닌 직원이 먼저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4500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투쟁하자!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같이 갔다 같이 오자!**

21일 오전 9시 사후조정 참석자

- 노측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
고대의료원지부 송은옥 직무대행, 노재옥 지도위원
- 사측 : 윤을식 의료원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호용 사무국장 및 의료원 집행부